

# 고흥, ‘어민 중심 해상풍력’ 혁신적 상생 모델 완성

## 민관협력 기구 공존위원회 출범...대표위원 55명 구성 자원 조사 등 의사 결정...국내 첫 예비지구 지정 기대

고흥군이 ‘어민이 직접 결정하는 해상풍력’이라는 혁신적인 상생 모델을 완성하며 정부의 예비지구 지정을 향한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우주출에서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이흥재 고흥군수협장, 어민 대표위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군수협 권역 해상풍력 공존위원회 출범 준비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나로도수협 권역에 이은 두 번째 결실로, 고흥군 전 해역을 아우르는 강력한 민관 협력 체계가 마침내 완성됐다. 이번에 구성된 공존위원회는 과거 민간사업자의 무분별한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바다의 주인인 어민이 개발 여부와 방식을 직접 결정하는 혁신

기구다.

위원회는 앞으로 해상풍력 입지에 대한 환경 및 자원 조사 참여, 주요 안전 심의, 상생 방안 발굴 등 실질적인 의사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운영 규정 의결과 함께 공동위원장과 어민 대표위원 55명을 구성해 조직 운영의 기틀을 구축했다.

해상풍력이 어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투명한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했다.

군은 이번 공존위원회 구성이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법에 따른 ‘국내 1호 예비지구’ 지정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이미 지난해 2건의 정부 연구 사업

(총 75억원 규모)에 선정돼 2GW 규모의 계획입지를 개발 중이며, 어민과의 대타협을 통해 정책적 추진력을 확보한 상태다.

이와 함께 이번 해상풍력 공존위원회 조직을 기점으로 3월 중 예비지구 신청을 완료하고, 오는 8월에는 500여명이 참여하는 ‘해상풍력 공존위원회 대국민 상생대회’를 개최해 군민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킬 계획이다.

공영민 군수는 “어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해상풍력은 추진하지 않겠다”며 “군이 책임지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어민과 수협이 추진 방식부터 상생 방안까지 직접 결정하는 전국 최고의 공공주도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흥재 고흥군수협장은 “수십 년간 바다를 지켜온 어민이 주인이 돼 질서 있는 개발을 이끄는 데 이번 출범의 큰 의미가 있다”며 “어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진정한 상생형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고흥군은 최근 군청 우주출에서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이흥재 고흥군수협장, 어민 대표위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군수협 권역 해상풍력 공존위원회 출범 준비회의’를 개최했다.

## 광양, 저출생·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선제 대응 나선다

### 인구정책 시행계획 174개 과제 심의·의결 ‘나만의 특별한 결혼식’ 등 신규사업 추진

광양시가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11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창의실에서 2026년 제1회 광양시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해 위원 10명과 관련 부서장 32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부서별 인구정책 관련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 2026년 광양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광양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한 도시 광양’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5대 분야 174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5

대 분야는 정주기반 확충,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청년층 경제적 자립 지원, 노후생활 환경 조성, 인구 변화 대응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다.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임신준비부부 엽산제 지원,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사업,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 ‘나’만의 특별한 결혼식 추진,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사업,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등이 포함됐다.

광양시 관계자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 구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누구나 평생 살고 싶은 도시 광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 인구는 2025년 말 기준 15만5259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567명 증가했다. 이는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인구 증가를 기록한 사례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



여수시는 최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적인 개최와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등 20여건의 도비 지원을 전남도에 공식 건의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오른쪽)이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지원 사업을 건의하고 있다.

## 여수, 전남도에 세계섬박람회 지원 건의

###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확대 등 20여건

여수시는 최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적인 개최와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등 20여건의 도비 지원을 전남도에 공식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섬박람회 기간 중 여수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인센티브 지원, 여수시랑상품권 가맹점 이용에 따른 카드형 추가 할인, 금오도 비랑길 구간 정비 등 시민과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시는 전남도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섬박람회 준비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박람회 성과가 지역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관광객 유치 인센티

브는 섬박람회 흥행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다”며 “도비 지원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수요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관광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섬 관광과 연계한 체류형 상품을 집중 육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단순 방문을 넘어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2개월간 열리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관광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국제 행사로, 국내외 관광객 300만명 이상 방문이 기대되고 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 곡성,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설명회 마무리

### 11개 읍·면 순회...내일까지 사후관리컨설팅

곡성군은 최근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2026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과 함께 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으뜸마을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고, 마을별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으뜸마을 사업 정책 설계 참여자 인 김하생 전통문화콘텐츠 연구소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설명회에서는 으뜸마을 사업 취지를 시작으로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추진 절차, 주민 참여 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이뤄졌다. 우수사례와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한 설명은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했다.

군은 13일까지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3년 차 종료된 마을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컨설팅을 추진한다.

컨설팅에는 전남도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장과 광주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민문식 소장이 참여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 으뜸마을 사업은 행정이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변 기자 hnnews1@gwangnam.co.kr

## 보성,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순항

### 군민 3만6000여명 대상...지급률 90% 돌파

보성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보성사랑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 지원금은 군민 3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총 110억여원 규모로, 전액 1만원 건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현재 지급률 90%를 넘어섰다.

군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창구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지원금 지급 이후 지역 상권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한 상인은 “지원금 지급 시기에는 방문 고객이 증가하고 매출도 평소보다 많이 늘어난다”며 “설 성수기와 맞물려 매출 상승을 제하고 있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 손님들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담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한 마을에서는 지원금을 받은 어르신이 “혼자만 쓰기보다 함께 나누는 게 더 뜻깊다”며 5만원을 마을회관에 기부했고, 이를



계기로 다른 주민들도 나눔에 동참했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월 31일까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보성사랑 지원금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한 정책이다”며 “아직 지원금을 받지 않은 군민은 3월 6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nth66@gwangnam.co.kr

## 순천,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

### 임산부·난임부부 574명 대상

순천시는 임산부·난임부부 총 574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임산부 꾸러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난임부부 꾸러미)이다.

해당 대상자에게는 연 48만원(자부담 9만6000원 포함)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13일까지이다. 임산부 꾸러미는 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산모수첩 제외) 등을 구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올해는 통합몰(에코이몰) 상반기 점검으로 온라인 신청이 제한되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을 받는 임산부와 전년도에 동일 자녀로 임산부 꾸러미 지원



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난임부부 꾸러미는 총 74명을 지원하며, 난임 시술비를 신청할 때 순천시 보육 아동과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전년도에 난임부부 꾸러미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우선해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래세대의 건강 증진과 함께 친환경농산물 소비 기반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